



고 김용균 투쟁,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- 발전산업 민영화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 앞에서

외주화 반대 투쟁 결과, 연료·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

2월 5일 설날, 정부와 여당은 「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」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. 당정은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**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(진상규명위원회)**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. 진상규명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.

당정은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**2인1조 근무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**하고 **적정한 인원을 충원할 방침을 세웠다**.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**중대 재해는 원·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**.



당정은 **연료·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**. 발전5사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통합해 공공기관을 신설하여 해당 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 산정, 노동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전5사의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. 개편 작업은 노무비의 삭감 없이 이뤄진다.

고 김용균 투쟁,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2월 9일, 고 김용균 님의 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. 지난 해 12월 11일 새벽 컨베이어벨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62일 만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간 서부발전 경영진, 또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산재로 사망한 직장동료의 죽음까지 팔아넘기는 것마저 서슴지 않은 패륜적 기회주의자들, 책임이 가장 큰 당사자임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던 정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.

투쟁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. 외주화는 여전히 발전현장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발전노동자들이 **발전산업 민영화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**. 발전산업의 외주화 반대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

발전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,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할 것입니다. 발전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노조 이름으로 함께 싸워주신 조합원 여러분과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

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져..

2019년 2월 9일,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62일 만에 장례가 치러졌습니다. 민주사회장으로 진행된 장례의 발인제와 노제, 영결식, 하관까지 발전노조가 함께 했습니다.

김용균이라는 빛을 가슴에 담고 발전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,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



◀ 발인제



◀ 노제 Ⅱ 태안화력발전소



◀ 노제 Ⅱ 서울 도심



◀ 노제 Ⅱ 서울 도심



◀ 영결식 Ⅱ 광화문



◀ 하관식 Ⅱ 마석묘란공원